

● 出 版

75年度 上半期の 出版界

—學術書籍이 줄어 든다—

活氣旺 文學類

금년 상반기를 통한 서적의 종별(種別) 간행실적증에서 지난 해에 비해 가장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은 문학서적으로 작년 동기 8백 6종에 비해 2백 8종이 많은 1천 14종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광복 30년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문학전집의 간행, 문예진흥원의 창작지원에 의한 출판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불황일수록 출판사들이 문학서적 간행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고증을 나타내고 있다. 그중에는 거의 작가가 스스로의 자금으로 출판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집(詩集)만 해도 99종이나 끼어있으며 소설은 무려 5백 52종이나 되어 간행물 전체를 통하여 여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아동물도 작년 동기 3백 45종에 비해 1백 97종이나 많은 5백 42종, 이것도 역시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신학기를 겨냥하여 몇몇 출판사가 수십권씩의 아동문학 혹은 교양전집 물음 풀어 내놓은 것이 원인이었다. 한편으로는 외국의 명작이나 위인전 등을 되풀이하여 간추리고 모으는 식의 아동물 간행이 성행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본격적인 문학장르로 성장한 국내의 아동문학계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집대성하여 전집 혹은 단행본으로 내놓은 경우도 많았다.

작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철학·사회과학·기술과학·역사·학습참고서 등인데 이들 대부분이 대학교재이거나 중고등학생용 참고서들이다. 대학교재 출판의 부진은 연초부터 대학이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한데에 원인이 있으며, 중고교생의 학습참고서도 부교재 채택의 비리(非理)를 막기 위한 문교부의 엄한 규제가 작용한 듯하다.

국민 4인당 1권꼴

월별 통계를 보면 1월에 4백 90종이던 것이 2월에는 6백 46종으로 늘어났고 3월 6백 58종, 4월 7백 5종, 5월이 7백 50종으로 가장 많았고 다시 6월에 와서는 5백 17종으로 떨어져 하한기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75年 上半期 刊行物 種數

		74 年 上半期	75 年 上半期	권 당 평균가액(원)
총	류	70	69	2,787
철	학	156	184	1,383
종	교	261	198	1,121
사	회	425	515	2,032
수	학	56	57	2,286
기	술	322	390	744
예	술	191	185	1,376
어	학	142	163	1,617
문	학	1,014	806	908
역	사	82	131	1,732
아	동	542	345	1,117
학	습	505	550	748
참	고			
계		3,766	3,598	1,318

◇서울지역에 한함. 初·重刊 포함

종류별 평균가격은 총류(總類)가 2천 7백 87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순수과학 2천 2백 86원, 사회과학 2천 32원으로 2천원대를 넘고 있으며 철학·종교·예술·어학·역사·아동이 1천원~2천원 사이이다. 그리고 기술·문학·학습참고서가 1천원 미만인데 그중 가장 낮은 것은 학습참고서로 7백 48원이었다. 문학은 9백 8원으로 평균치는 1천원 미만이지만 책에 따라 그 전폭은 상당히 컸다. 아동도서의 평균가격이 1천 1백 17원이라는 고액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직도 아동들에게 읽힐 수 있는 책 보다는 장식용 호화판 전집을 더 많이 내는 비합리성이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상반기 6개월을 통해 간행된 서적의 총 부수는 7백 90만 1천 4백 50부, 그 중 문학이 약 2백만부, 참고서가 약 2백만부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7백 90만부를 우리나라 인구 3천 3백만명에 할당해 보면 6개월동안 국민 4인당 책 1권 꼴로 출간된 셈이다.

그러면서도 책은 잘 팔리지 않고 적자를 보기 일쑤다. 그러나 국학방면의 새로운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내놓거나 극히 한정된 독자를 상대로 학술서적을 꾸준히 내놓는 출판사들도 아직은 많은 편이다. 해적판 덩핑류가 판을 쳐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요즘의 출판풍토 속에서 양서(良書) 출판의 보호육성이 시급함을 느끼게 한다.